

대학별 모집요강 꼼꼼히 살펴 수시·정시 결정해야

수능 D-130일...첫 문·이과 통합, EBS 연계 50%로 축소

“올해 수능 영향력 높아져...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은 첫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데다 EBS 연계율이 50%로 낮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럴때 입시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입시 관련 지식이다. 입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칫 헛갈릴 수 있는 입시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본다.

지금쯤이면 수험생들은 수시를 할 것인지 정시를 치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전년도 대학별 입시결과 자료만 보고 내신등급이 전년도 합격자와 비슷하면, 올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대학은 단순한 등급만으로 수험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년별 반영비율, 등급간 점수차이 등 대학별 환산 방법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교과성적 이외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논술, 적성, 서류 등 다양한 전형 요소에 따라 입시 결과가 변화한다는 점도 알고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전년도 지원가능 등급은 지원 시 참고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모집요강은 대체로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우선 모집인원 총괄표부터 눈여겨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모집시기에서 모집하는 전형들이 모두 나와 있고, 모집하는 학부나 학과별 선발하는 인원을 안내해 주고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과 지원할 학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형별 자료에서는 수능최저학력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전형 일정에서 원서접수 일정과 서류제출 마감 일정, 대학별고사가 있다면 예비소집은 있는지, 고사일시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대학별고사 일정의 경우, 다른 대학과 겹칠 수 있으므로 지원할 대학 간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흔히들 비교과활동을 많이 했으니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입시생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리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도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성 실적은 고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뿐이다. 진로활동이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은 독특한 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기 보다는 평이한 활동이라고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았다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연전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잘못된 대입 정보를 맹신해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입시 자료를 통해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시 비율이 늘고, 수시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위주 전형이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힘들더라도 끝까지 수능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대입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제4기 운영

경영, 해외진출, 상권분석, 매출활성화 등 이론·현장 교육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전문 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인 ‘2021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제4기’ 입학식이 지난 9일 조선이공대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송지현 학과장을 비롯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관계자,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광주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족발집배원 이창선 대표, 동경화보 윤태선 대표, 바른안경 김영훈 대표, 아필코 김형수 대표 등),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주요업체,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광주형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은 광주지역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프랜차이즈와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인력, 시설, 정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개설됐다.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가 공동 주관하는 2021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은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국내 최고의 실무형 전문가들로 강사진이 구성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프랜차이즈 미래 전략, 프랜차이즈 트렌드 및 경영전략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전략 및 해외진출 전략,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전략, 프랜차이즈 핵심전략과 전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및 마케팅전략, SNS를 활용한 매출활성화 전략,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및 핵심전략, 현장 탐방 및 세미나 등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에 필요한 보다 심화된 이론교육과 현장 교육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호남지역 유일의 프랜차이즈 전문학과인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는

조선이공대가 2018년 전국 전문대학 창업자수 2위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설립 14개, 브랜드 25개, 직·가맹점 207개, 일자리 창출기여 1000명을 달성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 완도신지중학교서 ‘찾아가는 찾아오는 실험실’ 개최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MNU국립대학육성사업단(단장 이형재)은 최근 완도신지중학교를 방문, 1~3학년 전교생 4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찾아오는 실험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찾아오는 실험실’은 도서 및 농촌지역 중·고등학교를 방문 또는 초청해 진로 및 전공 탐색 등 지식과 배움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목포대 제공>

호남대, ‘AI특성화’ 국가서비스대상

2년 연속 수상...AI 대중화·인재양성 공로 인정



호남대학교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2021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2년 연속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사진〉 호남대(총장 박상철)는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제에서 AI융합 혁신교과과정 개편과 AI캠퍼스 구축을 통해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양성해온 노력과 ‘AI대중화 교육’ 선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호남대학교는 지난 2020년에도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국내 최고의 AI특성화대학임을 2년 연속 공인받은 호남대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정부의 ‘AI국가전략’, 광주광역시 ‘AI중심도시’ 전략에 발맞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호남대는 지난 2019년 총장 직속으로 ‘AI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AI교육센터

와 AI빅데이터연구소를 두 축으로 AI융합캠퍼스를 구축,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광주 지역 유일의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는 그동안 지방대학 특성화(CK-1), 프라임(PRIME), 링크플러스(LINC+),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융합대학 지원사업’과 교육부와 지자체(광주시, 전남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사업(RIP)에 선정돼 AI융합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1978년 ‘육영보국’을 설립이념으로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서 혁신교육을 이끌어온 호남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드림(DREAM) 2028’ 장기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이이남스튜디오, 문화예술 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교육 활성화·공동사업 추진

광주대학교(총장 김형중)는 이이남스튜디오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며 문화예술 관련 각종 정보교류 및 시설 활용, 문화예술 연구 및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광주대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해 광주시 5개 자치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문화예술회관, 호랑가시나무장작소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진영 광주대 교육혁신연구원장은 “협약 기관과 더불어 광주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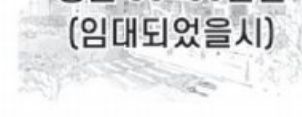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